자 기 소 개 서

성장과정 및 지원동기	저는 제주에서 나고 자라며 수평선 너머 넓은 바다에서 늘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 진학했지만 해운에 대한 열망을 접을 수 없었고, 1년 만에 자퇴해 홀로 1년간 수능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해양대학교에 입학했고, 이 결정은 '원하는 길이라면 돌아가더라도 끝까지 간다'는 제 끈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1학년 때, 동기들을 챙기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인정받아 학과 대표인 학생장을 맡았습니다. 해군 학군단에서는 2학년 소대장 후보생으로 선배와 동기 사이의 문제를 갈등 없이 풀어냈고, 4학년에는 후보생 전체를 이끄는 연대장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임관 후 해군교육사령부 3개월 교육과정에서는 4개 학교 학군단 임관자 중 3등의 성적으로 함정 선택권을 얻었습니다. 첫 보직은 참수리 고속정 편대 작전관이었습니다. 당직과 조함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었지만,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고자 지휘관께 건의해 당직근무평가를 통과한 뒤 자원해서 당직을 섰고, 승조원들에게 함정 제원을 하나하나 물으며 익혔습니다. 정장님께도 건의해 조함 당직을 맡아 직접 배를 몰며 조함 감각을 길렀습니다. 동시에 훈련 중 작전상황 전달, 비밀·예산·행정 업무를 빠르게 숙달해 편대 운영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직으로는 스스로 지원해 격오지 226전진기지대 부장을 맡았습니다. 장교는 대장님과 저 단둘이었기에 책임의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대원들과 토론해 발생 가능한 상황을 모아 훈련 시나리오를 만들어 교육·훈련했고, '사고는 예고 없이 온다'는 경각심으로 부대 자체 체크리스트를 확립해 매번 점검했습니다. 100명에 달하는 인원을 통솔하며 갈등을 조율한 결과, 1년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좋은 평가와 함께 복무를 마쳤습니다. 승선 전 공백을 두기보다 해운을 다른 각도에서 배우고자 보험중개회사 해상팀에서 적하보험 중개를 맡고 있습니다. 화주의 클레임을 해결하며 화물 사고 하나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 되는지 체감했고, 안전한 운송이 곧 신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해외 보험사 담당자들과 영어로 꾸준히 미팅하며 실무 영어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LNG는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화물입니다. 군에서 몸에 익힌 경각심과 꼼꼼함, 배운 것을 즉시 실전에 적용하는 습관은 MOL LNG선의 엄격한 안전 문화와 맞닿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지해운이 찾는 '성실로 책임을 다하고, 끊임없는 학습과 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는 제가 걸어온 길 그 자체입니다. 입사 후에는 외국어 역량을 더욱 키워 다국적 선원들과 신뢰를 쌓고, 화물과 선박을 모두 아는 전문 해기사로 성장하여 동지해운이 MOL과 함께 만들어가는 LNG 전문 인력의 이름에 걸맞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6 년 10 월 29 일 지원자 성 명 : 문 형 석